
碩士學位 請求論文

罰에 대한 教師와 學生의
知覺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高 明 奎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 專攻

秦 熙 昌

1991年 7月

罰에 대한 教師와 學生의
知覺에 관한 研究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 專攻

提出者 秦 熙 昌

指導教授 高 明 奎

1991年 7月 日

秦熙昌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1年 7月 日



主審 _____ 印

副審 _____ 印

副審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目 次

I.	緒 論	1
	A. 研究의 必要性	1
	B. 研究의 目的 및 研究問題	2
	C. 研究의 制限點	3
II.	理論的 背景	4
	A. 罰과 體罰의 概念	4
	B. 罰에 대한 肯定論 과 否定論	8
	C. 罰에 대한 倫理的 教育的 論議	20
III.	研究方法	23
	A. 研究의 道具	23
	B. 研究의 對象	23
	C. 資料의 處理方法	24
IV.	研究結果 및 解釋	25
	A. 罰에 대한 教師와 學生의 知覺의 差異	25
V.	要約 및 結論	49
	A. 要約	49
	B. 結論	51
*	參 考 文 獻	53
*	英 文 抄 錄	55
*	附 錄	58

表 目 次

<표 1>	연구 대상자수	24
<표 1-1>	성별에 따른 벌의 경험분석	25
<표 1-2>	학교급별에 따른 학생의 벌에 대한 경험분석	26
<표 1-3>	성별에 따른 교사의 벌에 대한 경험분석	26
<표 1-4>	학교급별에 따른 교사의 벌에 대한 경험분석	27
<표 2-1>	성별에 따른 학생의 벌의 필요성 지각분석	28
<표 2-2>	학교급별에 따른 학생의 벌의 필요성 지각분석	28
<표 2-3>	성별에 따른 교사의 벌의 필요성 지각분석	29
<표 2-4>	학교급별에 따른 교사의 벌의 필요성 지각분석	29
<표 3-1>	성별에 따른 학생의 벌의 불필요성 지각분석	30
<표 3-2>	학교급별에 따른 교사의 벌의 불필요성 지각분석	31
<표 3-3>	성별에 따른 교사의 벌의 불필요성 지각분석	31
<표 3-4>	학교급별에 따른 교사의 벌의 불필요성 지각분석	32
<표 4-1>	성별에 따른 학생의 벌의 필요성 지각강도 분석	32
<표 4-2>	학교급별에 따른 학생의 벌의 필요성 지각강도 분석	33
<표 4-3>	성별에 따른 교사의 벌의 필요성 지각강도 분석	34
<표 4-4>	학교급별에 따른 교사의 벌의 필요성 지각강도 분석	34
<표 5-1>	성별에 따른 학생이 바라는 벌의 필요한 이유분석	35
<표 5-2>	학교급별에 따른 학생이 바라는 벌의 필요한 이유분석	36
<표 5-3>	성별에 따른 교사가 바라는 벌의 필요한 이유분석	36
<표 5-4>	학교급별에 따른 교사가 바라는 벌의 필요한 이유분석	37
<표 6-1>	성별에 따른 학생이 벌받았던 장소 분석	38
<표 6-2>	학교급별에 따른 학생이 벌받았던 장소의 분석	38
<표 6-3>	교사의 성별에 따른 벌을 준 장소의 분석	39
<표 6-4>	교사의 학교급별에 따른 벌을 준 장소의 분석	39

<표 7-1>	학생 성별로 본 벌에 대한 과실행위의 행동변화 정도	— 40
<표 7-2>	학생의 학교급별로 본 벌에 의한 행동변화 정도	—— 40
<표 7-3>	교사의 성별로 본 벌에 의한 행동변화 정도	———— 41
<표 7-4>	교사의 학교급별로 본 벌에 의한 행동변화 정도	——— 41
<표 8-1>	학생 성별로 본 벌 사용방법 분석	————— 43
<표 8-2>	학생의 학교급별로 본 벌 사용방법 분석	————— 44
<표 8-3>	교사의 성별로 본 벌 사용방법 분석	————— 46
<표 8-4>	교사의 학교급별로 따른 벌 사용방법 분석	————— 47



I. 緒 論

A. 研究의 必要性

한 人間이 사회인으로 되어 가는데 教育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社會 구성원으로서 他人에게 教育적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他人으로부터 教育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을 教育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흡족하게 지도를 했다거나 만족하게 배웠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學生 指導에 벌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가지 사회 問題點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金南星은 "특별한 경우에는 처벌을 사용하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는 消去法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이 방법이 듣지 않을 때는 처벌을 사용하라. 그러나 처벌의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벌은 비난하거나 부정할것만도 아니고 여러가지 각도에서 研究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학생을 教育하는 데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자 사이에 인간적 신뢰 관계가 형성될 때에 보다 나은 教育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학생 지도에 있어서 바람직한 행동의 결과를 기대하고 좋은 행동을 촉진하는 계기를 주기위해 상을 주고 그와 반대로 어떤 행동을 다시는 못하게 하기 위해 벌을 주기도 한다. 상이나 벌은 학생의 행동변화를 위한 補償 體制로서 상이 積極的 補償이라면 벌은 消極的 補償인 것이다.

"학생들은 高學年이 되면서는 믿음직한 지도자 내지 엄정하고 規律 바른 교사를 원한다. 이들이 바라는 엄정하고 규율바른 교사는 결코 꾸중 잘하고 벌을 잘주는 교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1) 金南星, 「교육심리학」, (서울:교육과학사, 1983), p.129.

朴漣鎭²⁾는 지적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교육의 효과를 極大化 하고 학생의 올바른 人格 형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學校教育 現場에서 벌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追求하기 위하여 人爲的인 學生統制 手段으로 사용 되어지고 있다. 벌이 하나의 教育手段으로서 인정될 수 있으며 교육적으로 과연 효과가 있는 방법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하기에는 벌의 성격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비록 벌이 교육적으로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벌의 정도가 지나치거나 벌을 받은 당사자인 학생이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 예로부터 韓國社會에서는 전통적인 儒敎思想에 의하여 서당 등의 교육기관에서 학생지도방법으로 회초리를 사용하여 왔으며 이는 학생의 올바른 態度形成과 人格形成에 큰 影響을 주고 있는 것으로서 당연하게 생각되어 온 것 같다.

이에 본 研究者는 교사와 학생의 벌에 대한 知覺의 정도를 조사 분석하여 일선 學校教育 現場에서 效果的인 학생지도 方法改善에 기여 할 필요성을 느끼고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B. 研究의 目的 및 研究問題

최근 학교 교육 現場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벌이 교육적으로 그리고 社會的으로 論難이 되고 있다. 학교교육에서 罰은 허용 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禁止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단정짓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교육 現場에서 罰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지각의 정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벌을 통한 학생지도 방법의 改善에 필요한 基礎資料를 提示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目的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2) 朴漣鎭, 「교사와 인간관계론」 (서울; 법문사, 1984), p. 223.

1. 학생들의 性別과 학교급별에 따른 罰에 대한 지각의 차이는 있는가.
2. 교사들의 性別 학교급별에 따른 罰에 대한 지각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C. 研究의 制限點

1. 본 연구는 제주도내 초,중등학교 교사와 그 학생이 대상이므로 나타난 결과를 全國的인 것으로 擴大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2. 罰과 體罰의 개념은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體罰을 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3. 학생과 교사의 個人的 背景이 性別 및 학교급별로 제한 되었기 때문에 제반 환경적 變因이 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 하지 못하였다.



Ⅱ. 理論的 背景

본 研究의 基本的 입장을 확립하고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본 章에서는 벌과 체벌의 개념, 벌에 대한 肯·否定論과 벌에 대한 國內外的 연구동향 그리고 벌에 대한 倫理的 教育的 논의의 순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A. 罰과 體罰의 概念

1. 罰의 概念

罰이란 용어는 매우 다양한 문맥에 사용되고 있어서 여러가지 모호한 개념을 갖고 있으므로 그 말의 定義를 한마디로 나타내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教育的 차원에서 벌의 意味를 음미해 보고 일반적인 그 말의 뜻과 연관하여 그 定義를 概念化하여 보겠다.

李星珍³⁾에 의하면 “벌이란 어떤 반응이 일어난 뒤에 주어지는 것으로 그 반응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狀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벌의 의미는 부정적 行動을 수정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뜻으로서 아주 제한된 상황에서의 개념 定義라고 할 수 있다.

3) 李星珍 「학교에서 행동수정」교육신서2(서울:배영사,1990), p 36.

또 宋元實⁴⁾은 벌의 의미속에는 否定的 反應(규칙위반), 嫌惡刺戟이나 苦痛, 반응의 빈도등의 다양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벌이란 否定的 반응을 하는 개인에게 權威를 가진 사람이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어서 否定的 반응의 빈도를 감소시키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수정을 위하여 활용하는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최신 교육학 대사전」⁵⁾에서는 “일정한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 부여되는 不決나 苦痛의 經驗으로서 그 행동의 반응을 인정하지 않는것을 의미한다” 라고 벌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처럼 벌의 의미는 잘못을 회개시켜서 같은 행동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하는데 쓰이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 의미에서의 벌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을 다음 개념 정의에서도 알 수가 있다. 「종합국어사전」⁶⁾을 통해서 一般的 의미의 벌의 뜻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즉, “벌의 의미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어서 징계하고 억누르는 일” 이라고 이 책은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 意味의 벌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해지는 일이라 하겠고 교육적 意味의 벌은 부정적 행동을 미연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말할수 있어서 벌의 의미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李星珍⁷⁾에 의하면 Azrin & Holz는 “벌은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반응에 대해서 어떤 자극을 즉각적으로 줌으로써 그러한 否定的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減少시키는 것” 이라고 정의 했다고 한다.

4) 宋元實, “벌의 교육적효과에 관한연구”(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986), p. 8.

5) 南德佑外, 「최신교육대사전」(서울:교육과학사, 1983), p. 521.

6) 金敏洙, 洪雄善, 「종합국어사전」(서울:어문각, 1976), p. 598.

7) 李星珍, 「행동수정의 원리」, (서울:교육과학신서, 1977), p. 220.

또 李星珍⁸⁾은 Thorndike의 유명한 효과의 법칙은 “만족스런 結果는 반응의 強度를 增加시키고 불만족스런 結果는 反應의 強度를 弱화시킨다” 라고 지적하면서 벌이 교육에 있어서 효과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社會에서의 벌과 학교생활중 받게되는 벌은 그 벌이 뜻하는 바에 따라서 구별이 될 수 있다. 社會規範下에서 도둑질을 한 자에게는 그에 相應한 물건을 변상케 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應報의 苦痛을 가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물건을 훔친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벌을 내릴 때에는 그런 조치만 가지고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학교에서는 그 학생이 왜 그런 行爲를 하였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 학생에게 교사는 물건 훔치는 것이 왜 나쁜지를 충분히 이해시켜 주어야 한다. 이러한 학생지도를 한 후에 교사는 社會規範과 같은 조건하에서 벌을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런 벌로 인해 그 학생이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 즉, 교육적 見地에서 학생에게 罰을 가할때는 社會規範下에서 벌을 주는 것 이상의 조치를 필요로 한다.

Peters⁹⁾는 다음과 같이 벌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벌이란 규칙을 위반 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概念으로 規則을 위반한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고통 또는 어떤 심리적 不快感을 주는 것으로 그러한 苦痛이나 不快感은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하여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벌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벌의 개념을 정의 했다.

첫째 規則을 위반한 사람에게 줄것.

둘째 權威를 가진 사람이 줄것.

셋째 의도적으로 苦痛을 줄것.

이상의 기준을 충족 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8) 李星珍, 「상계서」, (서울:교육출판사, 1976)p. 77.

9) RS. Peters 李洪雨譯, 「윤리학과 교육」, (서울:교육과학사, 1984), p. 296.

이것은 벌의 適用範圍, 벌할 수 있는 사람의 資格, 벌에 대한 구분등을 다루고 있어서 비교적 範圍를 넓게 취급하고 있다.

이상에서 벌의 개념을 검토해 보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罰의 概念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본 연구에서의 일관된 개념으로 사용코자 한다.

“벌이란 사람에게 嫌惡刺戟을 줌으로써 인간행동의 後續措置로서 그런 행동의 재발생의 確率을 減少시키는데 주된 목적을 두는 방법이며 한 개인으로써 사람이 해야 할일을 하지 못했거나 바람직하지 못한일을 했을때 가해지는 불쾌, 고통, 만족의 박탈등 否定的 보수이다”

다음에는 벌에 대해서 混同을 줄 수 있는 체벌에 대한 概念을 분명히 하여 벌과 체벌의 概念 理解를 촉진하고자 한다.

2. 體罰의 概念

罰은 訓育의 下位 概念으로 그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체벌은 벌의 하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혼용될 수도 있다.

李熙昇¹⁰⁾의 國語辭典에 의하면 “體罰이란 身體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했다.

Holland와 Skinner 등은 체벌을 “반응에 뒤따르는 正的 強化因子의 보류 또는 負的 強化因子의 제시”¹¹⁾라 지적하고 있다.

「최신 교육학대사전」¹²⁾에서는 체벌을 “학업이 부진하거나 禁止되어 있는 일을 하였을 때와 같은 경우에 때리거나 세워두거나 食事を 시키지 않는 등의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을 가함으로써 격려한다든지 그 非行을 교정하는 方法”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교육적인 벌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10) 李熙昇, 「국어대사전」, (서울민중서관, 1975), p. 2813.

11) 김기석역, 「행동분석」, (서울: 고려대학 출판부, 1979), p. 273.

12) 南德佑外, 「전개서」, p. 2813.

이웃나라 日本의 경우는 체벌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체벌이란 “신체에 대한 侵害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는 분명히 체벌인 것이고 벌받는 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는 장시간 서있기, 꿇어앉아있기 등과 같은 징계도 體罰의 일종이다”¹³⁾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체벌에 대한 개념을 본 연구자는 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定義 하고 일관되게 통일하여 사용하겠다.

체벌이란 “신체부위에 접촉을 통해서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신체적 침해 및 그 이상의 정신적 苦痛 또는 威脅的인 느낌을 이용하여 否定的 行動 및 否定的 反應을 減少시키는 教育的인 강제수단”이다.

이상과 같이 벌의 개념과 체벌의 개념을 정의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벌과 체벌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고 벌이라는 용어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B. 罰에 대한 肯定論 과 否定論

學校教育 현장에서의 벌에 대한 견해는 양 肯定的인 측면과 否定的인 측면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벌에 대한 肯.否定的인 見解와 이에 따른 國內外的인 벌에 대한 연구동향을 고찰하겠다.

1. 罰에 대한 肯定的인 見解

宋元實¹⁴⁾은 그의 碩士學位 論文에서 “벌은 원칙적으로 버릴 수 없는 교육 수단의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만약 벌의 사용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학교사회나 일반 사회이건 벌이 全的으로

13) 沖原豊 「學校體罰」朴俊熙譯(서울:正民社,1982),p.157.

14) 宋元實,“벌의 교육효과에 관한연구”(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1986),p.38.

금지되는 경우를 언상하여 볼때 아무리 地上 天下에서 理想的인 학교 또는 사회라 할지라도 사회는 이질적인 인간의 집단인 만큼 無法的인 사회를 방불케 될 것은 사실이다. 人間化와 平和와 人權과 民主主義를 가장 발전시켜 왔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英美계의 국가에서도 본의는 아닐지라도 실제로 체벌을 허용하거나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 하더라도 인간의 행동을 變化시키기 위하여 벌이 교육적 수단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고 하여 벌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金丁煥¹⁵⁾은 벌은 古代로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고있고 Platon은 벌의 肯定的인 사유를 다음과 같은 몇가지 예를 들어 벌이 教育現場에서 인정됐다고 하고 있다.

- ① 각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 ② 잘못된 행동에 온당한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 ③ 그릇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Comenius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체벌을 찬성했다고 金丁煥¹⁶⁾은 언급하고 있다.

- “ ① 체벌은 필요하지 않으나, 외설적인 일이나 禱을 모독하는 일
- ② 고의적으로 교사의 명령에 반항하거나 반항하는 언행을 하는일
- ③ 친구가 요청한 일을 교만하게 거절했을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

Pestalozzi는 사랑에 입각한 교육을 주장했고 몸소 사랑의 교육을 실천 했으나 부분적으로 벌을 인정하여 多人數 집단 학습에서는 벌이 불가피함을 인정했다. 그는 벌이 일반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므로 되도록 억제해야 하지만 강한 혼련과정이나, 벌에 대해서 부

15) 金丁煥, 「전인교육론」, (서울:세영사, 1982), p.157.

16) 金丁煥, 「상계서」, pp.157-160.

모가 이해를 하고 교사를 진정으로 信任하고 있는 경우, 버릇없는 아이를 바로잡을 경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벌을 받음으로써 마음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아이를 고무해 주는 경우는 벌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여 訓育方法으로서의 벌의 가치를 조건부로 인정했다고 金丁煥¹⁷⁾은 그의 저서 「전인교육론」에 소개했다.

鄭元植, 李相魯¹⁸⁾에 의하면 “교육장면에 있어서 벌은 학생에게 교육적 정보를 주는데 의의가 있으며 학생 스스로가 學習의 結果를 확인하고 거기서 만족을 맛보는 內的補償이 이루어졌을 때 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外發的 動機로서의 賞과 罰은 학습동기를 단기적으로 유발하는데 그친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內發的 動機를 유발할 수 있게 활용하여야 한다.” 고 지적하여 학습동기 유발의 한 방법으로서 벌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金丁煥¹⁹⁾은 “벌도 규정성, 공정성, 통고성의 3원칙을 잘 지키면서 적정하게 활용한다면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 찬성론적 입장을 나타냈다.

金學秀와 李熙道²⁰⁾는 “신뢰성 자기통제와 같은 成熟한 人性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良心이라는 것도 外的 強化 체제 즉, 보상과 제재 없이는 이득되지 않는다. 교사가 분명한 외적 統制를 가함으로써 지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학생의 질서를 混亂시키게 되는 것이다” 라고하여 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음에는 세계 여러나라 중에서도 선진국가의 벌에 대한 教育動向을 알아보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벌에 대한 지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 先進 主要국가 몇개국들 중 美國, 日本, 獨逸, 英國을 중심으로 벌에 대한 긍정적 동향과 부정적 동향을 알아 보겠다.

17) 金丁煥, 「상계서」, pp. 162-163.

18) 鄭元植, 李相魯의 「현대교육심리학」, (서울:교육출판사, 1980), pp. 222-224.

19) 金丁煥, “교육철학적 측면에서 본 체벌론” 새교육통권346호(대한교육연합회, 1983), pp. 52-53.

20) 金學秀, 李熙道, 「현대교수학습론」, (서울:현대교육출판사, 1973), p. 219.

a. 罰에 대한 外國의 研究 動向

선진 外國의 벌에 대한 동향을 알아보면 外國의 경우에도 그 국가 전체가 하나로 肯定的이다 否定的이다 라고 어느 한쪽으로 뚜렷이 대표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그 국가들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또는 학교 경영자에 따라 肯定.否定 兩論으로 나누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 여러 나라는 최근들어 부정적인 면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 그 동향을 다음에 고찰 해 본다.

(1) 美國의 벌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 宋元實²¹⁾은 그의 연구논문 “벌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연구”에서 미국의 벌 형태를 소개했다. 그는 미국에서 벌을 긍정하고 있는 觀點의 動向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美國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벌의 實態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美國은 舊約聖書의 人間觀에 의해 벌의 根據를 제시하고 있는 나라이다.

둘째, 英國에서 主流를 형성하여 미국에 영향을 끼친 淸교도적 사상이 미국내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셋째, 퀘이커(Quaker) 교도는 중국 순자의 性惡說과 같아서 어린이는 사악한 존재로 보았다.

李喜榮²²⁾에 의하면 테네시州나 미주리州에서는 벌에 대해서 州法으로 정하지 않고 이를 각 학구에 일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테네시州의 가빌 카운터와 같은 학구에서는 규칙 제5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校長은 아동 학생에게 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벌은 제 3자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1) 宋元實, 「전계서」, p.18.

22) 李喜榮, “체벌에 대한교사, 학부모. 아동의 태도비교연구”(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2), p.157.

③ 敎員은 아동에 대해 벌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벌을 가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로 그리고 다른 교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을 당일 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日本 : 李喜榮²³⁾은 “1978년 일본의 한 高校師親會 연합회가 조사한 것을 지적하여 전체 73.3%의 학부모들이 교육적 체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고 했으며 또한 NHK가 東京역 통근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전체 91.1%의 시민이 체벌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았고 반대로 體罰을 否定的으로 보는 시민은 6.1%에 지나지 않았다” 고 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오늘날 체벌이 法的으로 禁止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사나 학부모 및 일반인 대부분이 體罰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英國 : 神原豊²⁴⁾에 의하면 영국의 학교교육에서는 기독교 人間觀의 영향을 받아 傳統的으로 벌이 인정되어 왔다. 그래서 罰도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Public School의 設立과 同時에 학교와 벌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었고 학교는 宗教教育이 기본을 이루고 있어서 紳士養成을 중요한 교육목표로 삼았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訓育 제일주의 교육에서 영국은 벌 制度를 유효한 교육수단으로 중시해 왔다.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온 벌로서는 罰金, 벌로서의 과업, 감금, 퇴학, 회초리 매질 등이 있었다” 라고 했다.

鄭忠教²⁵⁾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재 영국의 모든 학교가 일률적으로 학생에 대한 벌을 허용하고는 있지 않으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방교육당국(LEA)이 정하도록 되어있다. STOPP라는 벌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교원단체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잉글랜드 웨일즈의 1백4개 지방교육당국중 68개의 LEA 가 일정한 조건하에 인정하는 규칙을 정하고 있고 나머지 36개 LEA는 교장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있다”

23) 李喜榮, 『상계서』, p.30.

24) 神原豊 「전계서」, p.78.

25) 鄭忠教, “교사의 학생체벌은 불가피하다” 교육신보 86.12.8.

b. 罰에 대한 韓國의 研究 動向

罰에 대해서 肯定的으로 인정하는 연구논문은 선행 연구자 姜元根²⁶⁾이 발표한 “학교의 賞罰 실태에 관한 연구”인데 그는 물질적 벌도 공정하게 교육적으로 使用된다면 학부모 및 학생들도 肯定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朴泰隆²⁷⁾도 그의 연구논문 “체벌에 관한 교사 학부모의 태도 비교 연구”에서 학부모와 교사는 罰의 필요성 효과를 거의 모두 긍정하고 있다고 했다.

鄭琴仙²⁸⁾은 그의 석사학위 논문 “체벌의 교육학적 고찰”에서 벌을 效果的으로 운영하기만 하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여 긍정적으로 벌의 효과를 인정하면서 벌이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宋元實²⁹⁾도 그의 연구논문 “벌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벌은 제도적인 개혁이 없는 한 버릴 수 없으며 訓育을 위하여 행해지는 벌의 부작용을 최대한 극소화 시키고서 교육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李英俊³⁰⁾도 “아동체벌의 실태분석과 체벌이 아동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벌의 強度와 학부모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나 교사는 벌의 효과를 긍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26) 姜元根, “학교의 상벌실태에 관한연구”(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79), pp. 79-80.
- 27) 朴泰隆, “체벌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의 태도비교연구”(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2), p. 44.
- 28) 鄭琴仙, “체벌의 교육학적 고찰”(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976), pp. 7-10.
- 29) 宋元實, 「전계서」, p. 38.
- 30) 李英俊, “아동체벌의 실태분석과 체벌이 아동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1980), p. 87.

2. 罰에 대한 否定的 見解

金丁煥³¹⁾에 의하면 Quintilianus는 Platon과는 반대로 罰을 否定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때문에 罰을 반대했다고 하고 있다.

① 체벌은 원래 노예를 대상으로 주인의 눈을 피해 게으름을 피우는 노예에게 일 시키기 위해 채택되는 방법이기에 자유인의 자녀를 위한 자유교육의 방법으로는 맞지 않다.

② 체벌은 교육방법중에서도 가장 졸렬한 방법이다. 교사의 기술이 모자라거나 인격적 감화가 미치지 못할 때에 쓰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③ 매의 습성화이다. 매는 처음에는 효과가 있지만 자주 맞으면 그 효과가 감소된다. 그러기에 그것은 좋은 교육방법일 수가 없다.

④ 매는 정신적 恐怖心과 壓迫感을 주기 때문에 해롭다. 겁에 질려 하기 싫은 공부를 하는 피동적인 아이, 남 앞에서 모욕을 당하기 싫어 일을 얼버무리는 아이를 만들기 쉽다.

⑤ 매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아이들에게 恐怖心의 조성등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쁘다. 친구가 매맞는 光景을 보고 떠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車錫基³²⁾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Erasmus도 당시 학교에서의 회초리 교육을 비난하였고 인간애를 기본원리로 하는 자유 교육의 실시를 주장하여 자유인은 벌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교육되어야 하며 벌은 자유인을 노예로 하는 結果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여 벌교육은 비인간적인 길들이기 교육방법이라고 강력히 비난하여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사랑에 의한 교육을 역설하였다”

또 神原豊³³⁾에 의하면 “어린이나 學生에게 벌하지 않을 것을 주장한 A.S.neil에 의하면 벌한다는 것은 꾸짖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31) 金丁煥, “교육학적 측면에서 본 체벌론” 『세교육』 통권 346호 1983, 6, p. 5.

32) 車錫基, 『서양교육사』 (서울: 집문당 1981), p. 84.

33) 神原豊 「전계서」.

증오감이 생길 뿐이다”라고 하여 벌은 전혀 불필요한 것이라고 하여 어린이를 결코 벌하지 않는 것이 기본 생각으로 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冲原豊³⁴⁾은 계속하여 “세계 人權宣言이 국제연맹에서 채택되어 아동 보호에 관한 규정이 인정되었고 兒童의 인권을 일층 존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권사상의 고양, 특히 어린이 인권사상의 고조와 함께 교육수단으로서의 벌이 부당한 것으로 간주되고 벌폐지를 추구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鄭元植³⁵⁾은 다음과 같이 벌의 부작용을 들어서 역기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 ① 감정이 지나치게 고조되어 학습효과가 감소된다.
- ② 학습될 내용이 內在的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만 벌을 회피하려는 학습이 이루어진다.
- ③ 학습자에게 불필요한 불안, 긴장과 피곤을 준다.
- ④ 학습 국면의 사기가 저하된다.

李星珍³⁶⁾도 행동수정에 있어서 벌의 사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見解를 제시하였다.

- ① 벌의 결과는 강화의 結果보다 훨씬 복잡한 것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언하기 어렵다. 強化는 어떻게 행동하라는 것을 말해주나, 벌은 해야 할 행동을 말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벌 받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갈등을 겪게 된다.
- ② 벌의 結果는 강화의 결과보다 덜 永續的이라는 實證的 연구결과가 많다. 벌은 감정적으로 행동을 일시 억압할 수는 있으나 행동을 완전히 제거 해주지는 못한다. 각종의 이상 행동은 벌의 억압 기능에 의해 일단 억압 되었으나 원칙적으로는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하여 일어난다.

34) 冲原豊 「상계서」, p.121.

35) 鄭元植 「정보의 교육」(서울:배영사, 1973), p.106.

36) 李星珍 「행동수정의 원리」(서울:현대교육출판사, 1973), p.219.

③ 벌은 예상하지 않았던 부작용을 초래한다. 벌은 벌을 주는 사람에게 대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벌을 받으면 그 狀況을 피하는 경향이 생긴다.

④ 벌이 성행하는 상황에서는 아동들이 교사의 벌하는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있다. 이 模倣을 통하여 아동들은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인 關係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a. 罰에 대한 外國의 研究 動向

이제까지 벌에 대한 긍정적인 動向과는 달리 부정적인 方面에서 벌을 부정하는 경향도 있다. 다음에서는 先進外國이나 國內의 否定的 研究動向을 알아본다.

(1) 美國의 罰에 대한 否定的 側面 : 宋元實³⁷⁾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체벌판으로 어깨나 등과 같은 부위를 몇번 때리는 경우도 있으나 州에 따라서는 어떤 道具를 사용해서도 안되도록 되어 있는 곳도 있다. 체벌 시행 형태로는 다칠 우려가 없는 팔이나 어깨등과 같은 부위에 2 - 6회 때리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1972년과 1975년 미국 연방 최고 재판소에서 체벌 합헌적 판결에 의해 체벌을 합법화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鄭忠教³⁸⁾는 “미국의 50개州 가운데 메사추세츠, 메릴랜드, 뉴유저지州를 제외한 47개州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중 많은 州에서 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버지니아주의 학교 教育法에서는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립학교 및 州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학교의 교장 또는 교원은 그 권한에 의해서 아동 학생에게 적절한 體罰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37) 宋元實, 「상계서」, p.18.

38) 鄭忠教 「전계서」.

(2) 日本 : 冲原豊³⁹⁾에 의하면 日本에서는 학생에 대한 벌을 법률적인 면에서 원칙적으로 禁止하고 있다. 日本은 학교 교육법 제 11조에 따라서 교장 및 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독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및 아동에게 懲戒를 가할 수 있다. 다만 벌은 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獨逸 : 冲原豊에 의하면 서독이 통일 되기전 獨逸은 인권사상의 고양과 특히 어린이의 人權존중 思想의 고양과 더불어 교육수단으로서의 罰이 부당한 것으로 간주되고 벌 폐지가 추구되게 되었다. 그래서 벌이 금지된 나라인 獨逸은 獨逸에서 1972년 다음과 같은 「일반학교법」에 의해 벌을 禁止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 9 조 :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懲戒手段, 특히 집단벌 및 모든 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罰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 冲原豊에 의하면 함부르크州의 학교법 제 12조에도 『모든 교원은 벌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學生에 대한 신체적 및 정신적 상해의 가능성이 있으며 학생의 예절 態度의 觀念을 손상시키는 조치는 모두 이를 금지한다』고 되어있다.

冲原豊⁴⁰⁾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獨逸에서는 과거에 엄한 길들이기를 기본으로 하는 교육의 오랜 傳統이 있었다. 즉, 독일 가정에서의 어린이 교육은 옛부터 엄격하게 規律을 지키는 훈련이 철저하게 실시되어 왔다. 그런데 근래 統一되기 전까지의 독일은 學校에서 엄격한 교육이 傳統的으로 이루어졌고 학교교원들에게 벌을 포함한 징계권이 관습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서독의 各州가 근년에 와서 왜 벌을 금지하게 되었을까? 최근 바덴, 뷔르템베르크州에서는 「학교법」(제9조 제2항 제1단)에서 「벌을 배제된다」하여 벌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 한다.

이점에 대해서 西獨의 法學者인 헤설베카는 다음과 같이 見解를 밝히고 있다.

39) 冲原豊 「전계서」.

40) 冲原豊 「전계서」, p.120.

첫째, 西獨의 헌법인 “본” 기본법의 제1조 제1항에는 『人間的 존엄성은 불가침이다. 이것을 존중하고 나아가 보호하는 일은 모든 국가 權力의 의무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것에 벌이라는 교육수단은 저촉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본 기본법 제2조 제2항에는 「누구도 생명 및 신체를 침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身體의 自由는 불가침적인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侵害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신체의 불가침」이라는 것에도 벌이 저촉된다는 해석이 법학자간에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4) 英國 : 朴昌來⁴¹⁾에 의하면 최근 英國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매질을 포함 학생들에게 가하는 이 체벌을 폐지시키는 내용의 교육법 개정안을 231 대 230, 단 1표차로 통과시키게 됐다. 이 법안은 1986년 4월 상원에서도 92 대 90으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1986년 8월부터 발효되는데 私立學校에는 해당되지 않고 公立學校에서만 적용될 뿐이다. 이처럼 최근에 근소한 차이로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보면 교육현장 실제에서는 벌이 사용되고 있으나 부정하는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 罰에 대한 韓國의 研究 動向

벌에 대해서 국내의 최근 연구논문으로 否定的 견해를 제시한 것은 李奉三⁴²⁾의 “賞罰制의 교육적 효과”라는 碩士學位 논문으로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側面에서 벌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여 벌을 부정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자 吳淸煥⁴³⁾도 벌로써 참된 인간교

41) 朴昌來 “영국 회초리 교육 사라지다” 동아일보 86, 12, 6.

42) 李奉三, “상벌제의 교육적효과” 교육연구, 통권 92호(서울:한국교육 생산성 연구소, 1976), p. 104.

43) 吳淸煥 “국민학교에서의 훈육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6), pp. 86-87.

육을 할 수 없다”라며 벌을 否定하는 입장을 취했다. 또 鄭鎮坤⁴⁴은 벌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그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權五鎰⁴⁵은 벌의 역기능을 강조하여 심리적 側面에서 벌의 효과를 부정했다.

李玄子⁴⁶는 벌이 청소년기 학생들의 자아개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교사는 벌을 부정해야 한다고 했다. 房巒⁴⁷은 학교에서 벌의 사용가능성과 그 한계에 관한 고찰에서 우리나라의 법규정이나 학교 교칙에서 벌에 의한 징계 방법이 明文化되어 있지 않음은 원칙적으로 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법인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한다고 하여 벌을 부정했다.

이상과 같이 교육에서 배놓을 수 없는 벌의 문제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선진국가의 벌의 動向과 더불어 국내의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에 우리는 國.內外를 막론하고 벌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 教育現場에서 그 사용법을 과거와는 다른 방법에서 발전하는 時代에 걸맞게 벌 사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하겠다. 이러한 側面에서 볼때 벌은 그 사용에 있어서 윤리적 교육적 側面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에 다음 장에서 이를 논하여 보겠다.



44) 鄭鎮坤 “윤리적, 교육적 개념으로서의 벌”(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8), pp. 37-50.

45) 權五鎰, “교육상의 상벌론”, 교육연구 제9권5호, 1979, pp. 58-86.

46) 李玄子, “체벌이 자아개념형성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83), pp. 31-83.

47) 房巒, “한국교육에서 체벌의 사용 가능성과 그 한계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83), pp. 67-68.

C. 벌에 대한 倫理的 教育的 論議

교사가 教育的 效果를 생각하여 학생에게 벌을 가할때 어떤 倫理的 문제가 제기될까. 또 윤리적인 면만을 생각하여 教育的 고려없이 벌을 가해야 할까 등을 이 장에서는 탐색하여 본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벌을 가하는 경우 具體的인 사례에 있어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지시된 권장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금지된 사항을 어기는 경우 벌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몇가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아무리 벌을 가해도 계속 수업시간에 떠드는 兒童에게 수업시간중 교사의 말에 주의를 하지 않거나 他學生에게 방해된다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벌을 가할 수 있다. 이때 교사는 벌을 받는 학생이 그 학생사회 속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소외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應報的이라는 말처럼 사회가 범죄자를 처벌할 경우 그들이 응당 받아야 할 정도만큼만 처벌해야 하며 그 이상 처벌해서는 안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⁴⁸⁾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벌 문제는 벌 자체가 應報的 정의에 基本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교사 개인의 화풀이에 기반을 둔 것인지 구별하기 불분명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구별을 하는 일은 그 벌을 가하는 자의 동기가 어떤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런데 여기서 교사는 벌받는 학생이 저지른 行動의 結果에 대해 벌을 주면서 어떤 만족이 있어서는 안되고, 학생이 나쁜 行동을 했으므로 벌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느냐를 확인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48) 바르후, 브르디, 황경신역「응용윤리학」, (종로서적, 1988), pp. 89-90

둘째, 교사는 學校社會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規則을 제정하여 규칙을 어기는 자에게는 벌을 가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교사에 비하여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쉽기 때문에 학생에게 벌을 주면 교사에게 반감을 가지고 또한 학습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벌을 주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타학생의 비행을 豫防하는 次元에서 벌을 주게 되고 그 학생은 벌을 수용하기 보다는 심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교사는 타학생이 모방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벌을 주어야 하고 그 학생에게 댓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설득한 후 벌을 가해야 할 것이다. 일의 다음에는 보수가 있듯이 행위의 다음에는 댓가가 있음을 일깨워 주어 벌받는 경우에 苦痛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 갈등을 豫防해야 할 것이다.

한 행동의 도덕적 옳음은 그 行動의 어떤 좋은 目的을 實現하기 위하여 도덕적 역할을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道德規則이 모든 행위자에게 원래의 문제로서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그러한 종류의 행동이라는 데 있는것 처럼⁴⁹⁾ 교사의 處罰行動은 그 處罰場面에 있는 다른 학생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벌이라야 한다.

세째, 道德的으로 중요시 되거나 學校校則으로 禁止되어 있는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면 벌을 가할 것이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또 잘못된 행위의 결과에 대한 당연한 댓가를 받는다는 인식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주지 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처벌에 대한 이같은 의무론적 기본적인 생각은 應報的 教훈을 학생들에게 알림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기본적으로 이런것은 처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뒤따르는 결과에 상관없이 본래 선이라 생각하는 것이다.⁵⁰⁾ 그러나 벌의 應報的인 면과 豫防的인 면 사

49) 테일러, P. 김영신역, 「원리학의 기본원리」, (서울:서광산, 1985), p. 117.

50) 羅信奎, “학교교육에 있어서 체벌의 성립 근거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1989), p. 15.

이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교사는 改善的인 면과 豫防的인 면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할 것이다. 이 경우는 教育的인 측면에서 극복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倫理的인 문제가 제기된다.

자주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의 학생과 어쩌다가 한번 무단결석을 한 학생에게 벌을 가할 경우 벌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가해져야 한다는 입장이 윤리적 規範에 위배될 때가 있다. 또, 한가지 예를 들면 가정에서 버릇을 잘 가르쳐달라는 부탁을 할 경우 벌을 가하는 것은 교육적인 면에서 효과적이다. 그것은 죄의 輕重과 관련하여 결정하는 倫理問題에 위배되게 된다. 教育的 側面에서 벌을 가할 때는 사회 規範的 측면이나 倫理的 측면 이상으로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물리 물건훔친 아동에게는 社會規範的 측면에서는 벌을 가해야 하나 교육적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할 때도 있다. 벌은 윤리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학교에서의 벌과 사회에서의 벌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이상에서와 같이 학교사회에서 학생에게 벌이 가해지는 경우를 학습하는 경우와 학교 생활의 능동적 適應등을 중심으로 하여 벌에 대해서 교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탐색하여 보았다. 교사는 학교 생활의 여러가지 경우에 학생자신의 概念과 타학생에게 미치는 예방적 효과를 고려하여 벌을 가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보았다.

結論的으로 말을 한다면 倫理的.教育的 차원을 항상 일깨워 주며 적시적절하게 납득이 가게 벌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Ⅲ. 研究의 方法

A. 研究方法과 道具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학교 現場에서 學生指導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罰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지각의 정도를 조사하는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研究方法는 社會科學的 方法에 의하여, 두가지 질문지로 작성했다. 教師用 尺度와 學生用 尺度로서 둘다 각 문제 상황에 대하여 8개의 類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類목은 다음과 같다.

- 1) 벌의 經驗의 有無는 어느 정도인가 ?
- 2) 벌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지각하고 있는가 ?
- 3) 벌이 불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 4) 벌의 불필요성 지각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 ?
- 5) 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 6) 벌이 사용된 場所選擇 경향은 어떤가 ?
- 7) 벌에 의한 변화는 어느 정도인가 ?
- 8) 벌의 방법은 어떠한가 ?

B. 研究의 對象

본 연구의 대상은 濟州道內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그 학교에 재직중인 교사들로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자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학교는 5학년, 중.고등학교는 2학년 학생으로 한정했고 전체 640명을 무선표집하여 검사를 실시 했는데 이들 중 본 연구에 활용된 대상자수는 학생 313명, 교사 314명, 합계 627명이다.

研究에 직접 사용된 표집 대상자 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 1 연구의 대상 >

구분 학교 성별	학 생			교 사			총 계
	국민학교	중.고교	합계	국민학교	중.고교	합계	
남	50	113	163	32	151	183	346
여	45	105	150	25	106	131	281
계	95	218	313	57	257	314	627

C. 資料의 處理 方法

- 1) 각 집단별에 따라 빈도, 평균치, 표준편차 등을 구하였다.
- 2) 빈도자료를 성별 및 학교급별에 따라 X^2 검증을 하였다.
- 3) 서열척도에 반응 하도록 된 자료는 성별 및 학교급별에 따라
 차이검증
 (t 검증 및 f 검증)을 하였다.
- 4) 각종통계는 SPSS의 양식에 의하여 처리되었다.

IV. 結果分析 및 解釋

A. 學生과 教師의 罰에 대한 知覺의 差異

結果 해석 및 論議는 學生들의 性別과 학교급별에 따른 지각의 차이와 教師들의 性別 및 학교급별에 따른 지각의 차이를 8개 類目으로 분류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8개 류목은 다음과 같다.

1. 罰의 經驗 2. 罰의 필요성 3. 罰의 불필요성 4. 罰의 필요성의 強度 5. 罰이 필요한 이유 6. 罰사용 장소 7. 罰의 효과 8. 罰의 유형 등

1. 罰의 經驗分析

學生과 教師가 초,중,고등학교 별로 性別에 따라서 벌 받아본 經驗과 벌주어본 經驗을 알아보기 위한 比較分析 結果는 < 표 1-1 >에서 < 표 1-4 > 까지이다.

<표1-1> 性別에 따른 學生의 罰의 經驗

()안은 %임

항목 \ 性別	남 학생	여 학생
있다	162(99.39)	145(96.67)
없다	1(0.61)	5(33.32)
계	163(100)	150(100)

df=1
 $X^2=130.667$
 ** P < .01

<표1-2> 학교급별에 따른 학생의 罰의 經驗

()안은 %임

항목\ 학교급별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있다	93(97.89)	154(98.35)	27(90)
없다	2(2.11)	1(0.65)	3(10)
계	95(100)	155(100)	30(100)

<표 1-1>과<표 1-2>는 학생의 벌 받아본 經驗을 남,여별, 학교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1-1>에서 남,여 학생 모두가 (97.0 %이상)벌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표 1-2>의 學校 級別 分析에서는 國民學校와 中學校 學生들이 (98.0 %정도) 高等學校(90%)보다 벌을 받아본 경험에 대해 8%정도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90% 이상의 學生들은 각각의 학교에서 벌 받아본 經驗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1-3> 性別에 따른 教師의 罰의 經驗

()안은 %임

항목 \ 性別	남 교 사	여 교 사
있다	183(88.41)	91(88.35)
없다	24(11.59)	12(11.65)
계	207(100)	103(100)

df = 1
 $X^2 = 122.14$
 ** P < .01

df=1
 $X^2 = 60.6$
 ** P < .01

〈표 1-4〉 학교급별에 따른 教師의 罰 經驗

()안은 %임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있다	53(92.98)	83(89.25)	117(71.34)
없다	4(7.02)	10(10.75)	47(28.66)
계	57(100)	93(100)	164(100)
	df = 1 X ² = 42.12 ** P < .01	df = 1 X ² = 57.30 ** P < .01	df = 1 X ² = 35 ** P < .01

學生들이 벌 받아 본 경험과는 반대로 교사들이 벌을 주어본 경험이 있는가 하는 質問에 대해 〈표 1-3〉의 성별 분석에서 88% 남, 여교사 집단 공히 “있다”라는 쪽에 反應을 보이고 있으며 統計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표 1-4〉의 학교급별 分析에서는 國民學校 教師(93%), 中學校 教師(89%), 高等學校 教師(71%)의 순이며 教師들이 벌을 사용하는 빈도는 상급학교로 가면서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이 벌을 받아본 經驗과 교사가 벌을 주어본 經驗은 대체로 “받아본적이 있다”와 “주어본적이 있다”로 집약되며 본 分析은 生活指導의 상당부분이 벌에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다.

2. 罰의 필요성 知覺分析

학생과 교사의 벌의 필요성 知覺 分析을 성별 및 학교급별로 비교 분석 해 본것은 〈표 2-1〉에서 〈표 2-4〉 까지이다.

<표 2-1> 性別에 따른 학생의 벌의 필요성 知覺

()안은 %임

항목 \ 性別	남 학생	여 학생
1. 필요하다	121(74.23)	99(66.44)
2. 필요하지않다	42(25.77)	50(33.56)
계	163(100)	149(100)

df = 1
X² = 38.288
** P < .01

df = 1
X² =16.114
** P < .01

<표 2-2> 학교급별에 따른 學生의 罰의 필요성 知覺

()안은 %임

항목 \ 학교급별	국민 학교	중 학교	고 등 학교
필요하다	85(89.47)	103(66.88)	18(60)
필요하지않다	10(10.53)	51(33.12)	12(40)
계	95(100)	154(100)	30(100)

df = 1
X² = 59.211
** P < .01

df = 1
X² = 17.558
** P < .01

df = 1
X² = 1.200
** P < .01

<표 2-1>과 <표 2-2>는 學生의 벌의 필요성 여부의 반응을 性別 및 학교급별에 따라 분석하여 본 것이다. 性別 분석에서 罰의 필요성 지각은 남학생의 경우 필요성을 인정하는 集團(74%)이 부인하는 집단(26%)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여학생의 경우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집단(66%)이 부인하는 집단(34%)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男女學生 대부분이 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별 분석에서 벌의 필요성 지각은 國民學校(89%) 中學校(67%) 高等學校(60%)로 上級學校로 갈수록 필요성 지각 比率은 낮아지고 있다. 종합하여 볼 때 대부분의 學生들은 學校生活에서 벌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2-3> 性別에 따른 教師의 벌의 필요성 知覺

()안은 %임

항목 \ 학교급별	남 교 사	여 교 사
필요하다	176(85.02)	93(90.29)
필요하지 않다	31(14.98)	10(9.71)
계	207(100)	103(100)

df = 1 df = 1
 $X^2 = 101.570$ $X^2 = 66.883$
 ** P < .01 ** P < .01

<표 2-4> 학교급별에 따른 교사의 벌의 필요성 知覺

()안은 %임

항목 \ 학교급별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필요하다	52(91.23)	84(90.32)	137(83.54)
필요하지않다	5(8.77)	9(9.68)	27(16.46)
계	57(100)	93(100)	164(100)

df = 1 df = 1 df = 1
 $X^2 = 38.754$ $X^2 = 60.484$ $X^2 = 73.780$

<표 2 - 3>과 <표 2- 4>는 教師들에게 벌의 필요성 여부를 반응하도록 하여 이를 분석한 것이다. 性別 분석에서 男教師들은 85%가 벌의 필요성 쪽에 그리고 女教師들은 90%가 벌의 필요성 쪽에 반응하고 있다. 본 연구자료의 제한성 때문에 벌의 필요성 知覺에 여교

사들이 더 강하게 반응한 原因을 밝힐수는 없으나 학생들이 여교사를 남교사 보다 더 두려워 하지 않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다. 학교급별 분석에서 역시 各급 學校의 교사들이 벌이 필요한 쪽(83% 이상)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성의 強度는 上級學校로 갈수록 약간씩 줄어드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상을 종합할 때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指導하는데 있어서 벌의 사용이 불가피 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罰의 불필요성 知覺分析

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理由를 알아보기 위하여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4가지를 제시하고 그중 하나에 반응한 것을 男,女 교사, 학생별, 초,중,고등학교별로 비교분석 하였다. 벌이 필요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연구자가 설정했다. (1) 人間의 人格을 무시하므로 (2) 벌주는 사람의 화풀이에 불과하므로 (3) 人間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므로 (4) 벌없이도 지도가 가능하므로 등이다.

<표 3-1> 性別에 따른 학생의 벌의 불필요성 知覺

()안은 %임

항 목 \ 성 별	남 학생	여 학생
1.인간의 인격을 무시하므로	12 (24)	10 (19.23)
2.벌주는 사람의 화풀이에 불과하므로	11 (22)	12 (23.08)
3.인간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므로	15 (30)	14 (26.92)
4.벌없이도 지도가 가능하므로	12 (24)	16(30.77)
계	50(100)	52(100)

df = 3
X² = 0.720

df = 3
X² = 1.538

〈표 3-2〉 학교급별에 따른 學生의 벌의 불필요성 知覺

()안은 %임

항 목 \ 학교급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므로	5(33.33)	11(18.96)	3(25)
벌주는 사람의 화풀이에 불과하므로	2(13.33)	16(27.59)	2(16.67)
인간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므로	7(46.67)	14(24.14)	0(0)
벌 없이도 지도가 가능하므로	1(6.67)	17(29.31)	7(58.33)
계	15(100)	64(100)	12(100)

df = 3
X²=1.448

〈표 3-1〉과 〈표 3-2〉는 罰이 필요없다고 반응한 學生 集團에게 그 이유를 반응토록 한 결과이다. 남학생의 경우 벌이 필요없는 이유에 관련된 4가지 반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향성은 女學生의 경우도 유사한 상태이다. 학교급별 분석에서도 벌이 불필요한 이유들 간에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두 分析의 결과는 벌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에 대한 意識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3-3〉 性別에 따른 教師의 罰의 불필요성 知覺

()안은 %임

항 목 \ 성 별	남 교 사	여 교 사
1.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므로	15 (45.45)	6 (42.86)
2. 벌주는 사람의 화풀이에 불과하므로	4 (12.12)	1 (7.14)
3. 인간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므로	5(15.15)	2 (14.29)
4. 벌 없이도 지도가 가능하므로	9(27.27)	5 (35.71)
계	33(100)	14(100)

〈표 3-4〉 학교급별로 본 教師의 罰의 불필요성 知覺

()안은 %임

항 목 \ 성 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므로	3(50)	3(27.27)	15(50)
2. 벌주는 사람의 화풀이에 불과	1(16.67)	2(18.18)	3(10)
3. 인간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므로	2(33.33)	1(9.09)	5(16.67)
4. 벌없이도 지도가 가능하므로	0	5(45.46)	7(23.33)
계	6(100)	11(100)	30(100)

〈표 3-3〉과 〈표 3-4〉는 罰의 불필요성 知覺에 대한 教師들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학생집단의 경우와 유사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學生이나 教師 집단들이 벌의 불필요성 知覺이 확립된 이유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罰의 필요성 知覺의 強度分析

學校 教育에서 벌을 찬성하는 경우 學生이나 교사가 어느정도로 벌을 필요로 하는가를 알아보는 分析을 〈표 4-1〉에서 〈표 4-4〉까지 제시했다.

〈표 4-1〉 性別에 따른 學生의 벌의 필요성 知覺 強度

	N	\bar{X}	S	t	유의도
남 학생	119	3.9328	0.607	-1.56	NS.
여 학생	98	4.0510	0.484		

〈표 4-2〉 학교급별에 따른 學生의 벌의 필요성 知覺強度

	N	\bar{X}	S
국민학교	82	4.1829	0.6112
중학교	101	3.8614	0.4697
고등학교	17	3.7647	0.6642

SV	SS	df	MS	F
SSB	5.5807	2	2.7903	9.258
SSW	59.3743	197	0.3014	
SST	64.9550	199		

** P < .01

〈표 4-1〉과 〈표 4-2〉는 학생들이 罰의 필요성을 얼마만큼 강하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벌이 필요하다” (5), “필요하다”(4), “잘 모르겠다”(3), “필요없다”(2), “전혀 필요없다”(1) 등 Likert형 5점척에 학생들을 반응케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男,女 學生의 반응은 척도상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는 사이에 있으며 두 집단간에 統計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학교급별 분석에서는 國民學校 학생들 ($\bar{X}=4.1829$)이 가장 강하게 벌의 필요성을 지각하는 한편, 고등학생 ($\bar{X}=3.7647$)들이 벌의 불필요성 知覺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느 集團에서나 벌의 필요성 知覺 인식은 강한 쪽으로 기울어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4-3> 性別에 따른 教師의 罰의 필요성 知覺強度

	N	\bar{X}	S	t	유의도
남 교사	181	3.9116	0.48	-0.649	NS.
여 교사	93	3.9462	0.270		

<표 4-4> 학교급별에 따른 교사의 벌의 필요성 知覺強度

	N	\bar{X}	S
국민학교	51	3.8431	0.3673
중학교	91	3.4060	0.3944
고등학교	136	3.8971	0.3902

SV	SS	df	MS	F
SSB	0.9551	2	0.4775	3.180
SSW	41.3039	275	0.1502	
SST	42.2590	277		

<표 4-3>과 <표 4-4>는 教師들이 벌의 필요성을 얼마만큼 강하게 知覺하고 있는가를 分析한 結果이다. 教師들의 벌의 필요성 知覺強度는 “필요하다”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男,女 교사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 4-4>의 학교급별 분석에서도 교사들의 경우 대체로 벌의 필요성 知覺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모두 罰의 필요성 知覺은 확고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5. 罰이 필요한 理由分析

學生과 教師 모두에게 어떤 이유에서 벌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나타내게 하는 것 4가지를 제시해서 그중 하나에 반응하게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자가 설정한 벌이 필요한 이유는 (1) 학습을 향상시켜주므로, (2) 질서유지가 잘 되므로, (3)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게 하므로, (4) 나쁜 버릇을 고쳐주므로 등으로 제시했다.

〈표 5-1〉 性別에 따른 학생이 바라는 벌이 필요한 이유
()안은 %임

항 목 \ 성 별	남 학생	여 학생
1. 학습을 향상시켜 주므로	9(7.69)	14(14.43)
2. 질서유지가 잘 되므로	34(29.06)	25(25.77)
3.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게 되므로	12(10.26)	10(10.31)
4. 나쁜 버릇을 고쳐 주므로	62(52.99)	48(49.49)
계	127(100)	95(100)

$df = 3$ $df = 3$
 $X^2 = 61.632$ $X^2 = 35.990$
 $** P < .01$ $** P < .01$

〈표 5-2〉 학교급별에 따른 學生이 바라는 罰이 필요한 이유
()안은 %임

항 목 \ 학교급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학습을 향상시켜 주므로	11(13.41)	10(10.20)	16
2. 질서유지가 잘 되므로	13(15.85)	29(29.59)	10
3.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게 되므로	9(9.76)	10(10.98)	2
4. 나쁜 버릇을 고쳐주므로	50(60.98)	49(50.00)	6
계	83(100)	98(100)	34

df = 3 df = 3
 $X^2 = 57.220$ $X^2 = 42.490$
 ** P < .01 ** P < .01

〈표 5-1〉과 〈표 5-2〉는 학생들에게 벌이 필요한 이유를 반응제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性別分析에서 男.女 學生들은 공히 벌이 “나쁜 버릇을 고쳐준다”와 “질서유지가 잘된다”는 항목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학교급별분석의 경우 國民學校와 中學校 學生들은 性別 분석의 경우와 유사한 반응을 보였으나, 高等學校 學生들은 제시된 이유들의 반응에서 유의한 差異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5-3〉 性別에 따른 教師가 바라는 벌이 필요한 이유
()안은 %임

항 목 \ 성 별	남 교 사	여 교 사
1. 학습을 향상시켜 주므로	13(17.51)	16 (17.20)
2. 질서유지가 잘 되므로	135 (76.27)	67 (72.68)
3.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게 되므로	6 (3.39)	9 (9.68)
4. 나쁜 버릇을 고쳐 주므로	5 (12.83)	1 (1.08)
계	159(100)	83(100)

df = 3
 $X^2 = 362.674$

〈표 5-4〉 학교급별에 따른 教師가 바라는 罰이 필요한 이유

()안은 %임

항 목 \ 학교급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학습을 향상시켜 주므로	10(22.73)	23(28.39)	11(8.87)
2. 질서유지가 잘 되므로	20(45.45)	33(40.74)	65(52.42)
3. 교사의 지시에 잘따르게 되므로	1(2.27))	4(4.94)	5(4.03)
4. 나쁜 버릇을 고쳐 주므로	13(29.55)	21(25.93)	43(34.68)
계	44(100)	80(100)	124(100)

df = 3
 $\chi^2 = 80.581$

〈표 5-3〉 과 〈표 5-4〉는 教師들에게 벌이 필요한 이유를 반응케한 결과이다. 男子教師들은 76%가 학교생활의 질서유지에, 18%가 학습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女教師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 분석에서 國民學校와 中.高等學校에 재직중인 教師들의 반응은 學生들의 反應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教師들은 학교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6. 罰이 사용된 場所分析

학생들이 過失行爲를 저질렀을 때 어떤 곳에서 벌을 주고 있는가를 알아본 벌사용 場所를 비교분석한 것이 〈표 6-1〉에서 〈표 6-4〉까지이다.

〈표 6-1〉 학생性別에 따른 벌을 받았던 장소

()안은 %임

항 목 \ 성 별	남 학생	여 학생
1. 과실행위를 한 현장	72(78.26)	64(87.67)
2. 교무실	17(18.48)	5(6.85)
3. 아무도 없는곳	3(3.26)	4(5.48)
계	92(100)	73(100)

〈표 6-2〉 學生의 학교급별에 따른 벌 받았던 장소

()안은 %임

항 목 \ 학교급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과실행위를 한 현장	64(87.67)	71(73.2)	12(70.59)
2. 교무실	5(6.85)	22(22.68)	3(17.65)
3. 아무도 없는곳	4(5.48)	4(4.12)	2(11.76)
계	73(100)	77(100)	17(100)

〈표 6-1〉과 〈표 6-2〉는 學生들이 벌받은 장소를 분석한 결과이다. 男學生 集團(78%)이나 女學生 集團(87%) 공히 벌받은 장소는 過失 행위를 일으킨 현장에 가장 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 분석에서도 역시 어느 學校에서나 過失行爲 현장에서 즉시 벌을 받은 것으로 반응하고 있다.

<표 6-3> 教師의 성별에 따른 벌을 주었던 장소

()은 %임

항 목 \ 성 별	남 교 사	여 교 사
1. 과실행위를 한 현장	85(49.71)	55(66.27)
2. 교무실	26(15.20)	2(2.40)
3. 아무도 없는곳	60(35.09)	26(31.33)
계	171(100)	83(100)

df = 2
 $X^2 = 39.193$
 ** P < .01

<표 6-4> 教師의 학교급별에 따른 벌을 주었던 장소

()안은 %임

항 목 \ 학교급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과실행위를 한 현장	30(62.5)	59(71.95)	51(39.84)
2. 교무실	4(8.33)	6(6.32)	15(11.72)
3. 아무도 없는곳	14(29.17)	17(20.73)	62(48.88)
계	48(100)	72(100)	119(100)

$X^2 = 21.5$ df = 2 df = 2
 $P < .01$ $X^2 = 57.244$ $X^2 = 28.328$
 P < .01 P < .01

<표 6-3>과 <표 6-4>는 教師들이 학생들에게 벌을 준 장소가 어디였는지를 조사 분석한 것이다. 男.女教師들 공히 “過失行爲를 일으킨 현장”의 항목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아무도 없는곳”에서 벌을 주었다는 項目에 높은 빈도로 반응을 보였다. 벌이 사용된 장소에 대한 지각은 대체로 學生集團이나 教師集團 모두 과실행위 현장에 일치된 傾向性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7. 罰에 의한 過失 行動變化 정도에 대한 效果分析

罰의 效果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는 조사 분석표를 <표 7-1>에서 <표 7-4>까지 제시한다.

<표 7-1> 學生性別로 본 벌에 대한 過失行爲의 行動變化 정도

성 별 \ 결 과	N	\bar{X}	S	t
남 학 생	119	3.3193	1.041	-2.70 **
여 학 생	106	3.6792	0.952	

** P < .01

<표 7-2> 學生의 학교급별로 본 罰에 의한 行動變化 정도

학교급별 \ 결 과	N	\bar{X}	S
국 민 학 교	150	3.3467	1.0297
중 학 교	74	3.7973	0.9063
고 등 학 교	224	3.4955	1.0111

SV	SS	df	MS	F
SSB	10.0628	3	10.0628	10.251 **
SSW	217.9328	222	0.9817	
SST	227.9956	223		

** P < .01

<표 7-1>과 <표 7-2>는 罰의 행동수정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우 효과적이었다”(5), “효과적이었다”(4), “잘 모르겠다”(3),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다”(2), 그리고 “전혀 효과적이지 못했다”(1)등으로 서열

척도화된 Likert형 문항에 學生들을 반응하도록 한 결과이다.

별 效果에 대한 반응은 女學生 ($\bar{X}=3.6792$)이 男學生 ($\bar{X}=3.3193$) 보다 더욱 肯定的이라고 말할 수 있다. ($P < .01$) 학교급별 분석에서도 각 집단은 統計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中學校 ($\bar{X}=3.7973$)가 가장 높고, 國民學校 ($\bar{X}=3.3467$)가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어느 집단에서나 중첩지점을 능가하여 별의 效果를 인정하려는 경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표 7-3> 教師의 性別로 본 별에 의한 行動變化 정도

성 별 \ 결 과	N	\bar{X}	S	t
남 교 사	178	2.9326	0.607	-0.18
여 교 사	93	2.9462	0.559	

<표 7-4> 교사의 학교급별 로 본 별에 의한 行動變化 정도

학교급별 \ 결과	N	\bar{X}	S
국 민 학 교	51	2.9412	0.7324
중 학 교	81	2.9326	0.5178
고 등 학 교	135	2.9481	0.5772

SV	SS	df	MS	F
SSB	0.0130	2	0.0065	0.019
SSW	95.0561	272	0.3495	
SST	95.0690	274		

<표 7-3>과 <표 7-4>는 罰의 행동수정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사들에게 반응케 한 결과이다. 학생집단의 분석과는 대조적으로 교사들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다>에서 <잘 모르겠다>는 편으로 대체적인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교사 스스로가 사용한 벌에 대해 자신들은 그 효과에 회의적인 반면 학생들은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두드러진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8. 罰의 類型分析

학생지도시에 보통 사용되고 있는 벌의 사용방법을 13개 설정하고서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됐던 벌의 방법 순위를 5개 지정한 것을 조사 비교 분석한 것을 <표 8-1>에서 <표 8-4> 까지 나타냈다.



<표 8-1> 學生 性別로 본 벌사용 方法 分析 ()안은 %임

항 목 \ 성 별	남 학생	여 학생	합 계
1. 손바닥을 때로 때린다.	83 ① (15.29)	81 ① (18.49)	164 (80.0)
2. 종아리를 때로 때린다.	53 ④ (9.76)	9 (2.05)	62 (30.2)
3. 엉덩이를 때로 때린다.	74 ② (13.63)	26 (5.94)	100 (48.8)
4. 뺨을 때린다.	50 ⑤ (9.21)	17 (3.88)	67 (32.7)
5. 출석부나 책으로 때린다.	15 (2.76)	23 (5.25)	38 (18.5)
6. 주먹으로 알밤을 준다.	58 ③ (10.68)	54 ② (12.33)	112 (54.6)
7. 손으로 꼬집는다.	17 (3.13)	26 (5.94)	43 (21.0)
8. 끊어 잡아 있게 한다.	24 (4.42)	31 ⑤ (7.08)	55 (26.8)
9. 엇드려 뺨쳐있게 한다.	42 (7.73)	31 ⑤ (7.08)	73 (35.6)
10. 토끼뺨을 시킨다.	20 (3.68)	14 (3.19)	34 (16.6)
11. 손을 들고 서 있게 한다.	40 (7.37)	47 ③ (10.73)	87 (42.4)
12. 벌 청소를 시킨다.	32 (5.89)	37 (8.45)	69 (33.7)
13. 단체 기합을 준다.	35 (6.45)	42 ④ (9.59)	77 (37.6)

〈표 8-2〉 학생의 학교급별로 본 罰사용 方法 分析()안은 %임

항 목 \ 학교급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1. 손바닥을 때로 때린다.	68 ① (18.58)	75 ① (16.09)	12 ① (17.91)	155 (82.4)
2. 종아리를 때로 때린다.	4 (1.09)	48 ④ (10.30)	5 ⑤ (7.46)	57 (30.3)
3. 엉덩이를 때로 때린다.	12 (3.28)	67 ② (14.38)	12 ① (17.91)	91 (48.4)
4. 뺨을 때린다.	16 (4.37)	37 (7.94)	8 ④ (11.94)	61 (32.4)
5. 출석부나 책으로 때린다.	14 (3.82)	15 (3.22)	5 ⑤ (7.46)	34 (18.1)
6. 주먹으로 알밤을 준다.	48 ③ (13.11)	49 ③ (10.52)	9 ③ (13.43)	106 (56.4)
7. 손으로 꼬집는다.	15 (4.09)	22 (4.72)	2 (2.99)	39 (20.7)
8. 꿰어 앉아 있게한다.	25 (6.83)	21 (4.51)	2 (2.99)	48 (25.5)
9. 엮드려 벌쳐있게한다.	17 (4.64)	44 ⑤ (9.44)	3 (4.48)	64 (34.0)
10. 토끼뿔을 시킨다.	13 (3.55)	13 (2.79)	3 (4.48)	29 (15.4)
11. 손을 들고 서있게한다	59 ② (16.12)	20 (4.29)	1 (1.49)	80 (42.6)
12. 벌 청소를 시킨다.	48 ③ (13.11)	17 (3.65)	2 (2.99)	67 (35.6)
13. 단체 기합을 준다.	27 ⑤ (7.38)	38 (8.15)	3 (4.48)	68 (36.2)

〈표 8-1〉과 〈표 8-2〉는 13가지의 罰의 유형중 학생들이 經驗한 것을 5개만 지적하도록 하여 그 반응을 종합한 것이다. 性別 分析에서는 男學生 集團은 1위가 손바닥을 때린다, 2위 엉덩이를 때로 때린다, 3위 주먹으로 알밤을 준다, 4위 종아리를 때로 때린다, 5위 뺨을 때린다 등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1위가 손바닥을 때로 때린다, 2위 주먹으로 알밤을 준다, 3위 손을 들고 서있게 한다, 4위 단체기합을 준다, 5위 꿰어 앉아 있게 한다 등의 순서이다. 학교급별 분석에서는 國民學校는 1위가 손바닥을 때린다, 2위 손을 들고 서있게 한다, 3위 벌청소를 시킨다, 4위 주먹으로 알밤을 준다, 5위 단체기합을 준다 등으로 나타났고, 中學校는 1위가 손바닥을 때로 때린다, 2위 엉덩이를 때로 때린다, 3위 주먹으로 알밤을 준다, 4위 종아리를 때로 때린다, 5위 엎드려 뺨쳐있게 한다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高等學校는 1위가 손바닥을 때로 때린다, 2위 엉덩이를 때로 때린다, 3위 주먹으로 알밤을 준다, 4위 뺨을 때린다, 5위 종아리를 때로 때린다 등으로 나타났다.



〈표 8-3〉 教師의 性別로 본 벌 使用方法 分析 ()안은 %임

항 목 \ 성 별	남 교 사	여 교 사	합 계
1. 손바닥을 매로 때린다.	84 ④ (8.56)	65 ① (16.37)	149 (59.8)
2. 종아리를 매로 때린다.	53 (5.40)	20 (5.04)	73 (29.3)
3. 엉덩이를 매로 때린다.	77 ⑤ (7.85)	32 ⑤ (8.06)	109 (43.8)
4. 뺨을 때린다.	25 (12.55)	6 (1.51)	31 (12.4)
5. 출석부나 책으로 때린다.	8 (0.82)	6 (1.51)	14 (5.6)
6. 주먹으로 알밤을 준다.	64 (6.52)	29 (7.30)	93 (37.3)
7. 손으로 꼬집는다.	28 (2.85)	14 (3.53)	42 (16.9)
8. 꿰어 앉아 있게 한다.	94 ① (9.58)	63 ② (15.87)	157 (63.1)
9. 엎드려 번쳐있게 한다.	85 ③ (8.66)	26 (6.55)	111 (44.6)
10. 토끼뿔을 시킨다.	39 (3.98)	13 (3.27)	52 (20.9)
11. 손을 들고 서있게 한다.	87 ② (8.87)	49 ③ (12.34)	136 (54.6)
12. 벌 청소를 시킨다.	72 (7.34)	46 ④ (11.59)	118 (47.4)
13. 단체 기합을 준다.	51 (5.19)	28 (7.05)	79 (31.7)

〈표 8-4〉 교사의 학교급별로 본 벌 使用方法 分析)안은 %임

항 목 \ 학교급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1. 손바닥을 매로 때린다.	52 ① (12.62)	68 ② (12.93)	29 ④ (12.83)	149 (59.8)
2. 종아리를 매로 때린다.	32 (7.77)	31 (5.89)	10 (4.42)	73 (29.3)
3. 엉덩이를 매로 때린다.	44 ④ (10.68)	50 ⑤ (9.51)	15 (6.64)	109 (43.8)
4. 뺨을 때린다.	9 (2.18)	15 (2.85)	8 (3.54)	32 (12.9)
5. 출석부나 책으로 때린다.	6 (1.46)	4 (0.76)	4 (1.77)	14 (5.6)
6. 주먹으로 알밤을 준다.	36 (8.74)	42 (7.98)	17 (7.52)	95 (38.2)
7. 손으로 꼬집는다.	15 (3.64)	22 (4.18)	6 (2.65)	43 (17.3)
8. 꿰어 앉아 있게 한다.	48 ② (11.65)	73 ① (3.88)	36 ① (15.93)	157 (63.1)
9. 엎드려 번쳐있게 한다	38 ⑤ (9.22)	49 (9.32)	22 ⑤ (9.73)	109 (43.8)
10. 토끼힘을 시킨다.	20 (4.85)	26 (4.94)	6 (2.65)	52 (20.9)
11. 손을 들고 서 있게 한다.	47 ③ (11.41)	55 ④ (10.46)	32 ② (14.16)	134 (53.8)
12. 벌 청소를 시킨다.	30 (7.28)	57 ③ (10.84)	31 ③ (13.72)	118 (47.4)
13. 단체 기합을 준다.	35 (8.49)	34 (6.46)	10 (4.42)	79 (31.7)

<표 8-3>과 <표 8-4>는 교사들이 사용한 벌에 대한 순위를 조사한 결과이다.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 男教師는 1위가 꿰어앉아 있게 한다, 2위 손을 들고 서 있게 한다, 3위 엎드려 뺨쳐있게 한다, 4위 손바닥을 때로 때린다, 5위 엉덩이를 때로 때린다 등으로 나타났고 女教師는 1위가 손바닥을 때로 때린다, 2위 꿰어앉아 있게한다, 3위 손을 들고 서있게 한다, 4위 벌 청소를 시킨다, 5위 엉덩이를 때로 때린다고 됐다. 교사의 학교급별 분석에서 國民學校는 1위가 손바닥을 때로 때린다, 2위 꿰어 앉아있게 한다, 3위 손을 들고 서있게한다, 4위 엉덩이를 때로 때린다, 5위 엎드려 뺨쳐있게 한다 등으로 됐다. 中學校는 1위가 꿰어 앉아 있게한다, 2위가 손바닥을 때로 때린다, 3위 벌 청소를 시킨다, 4위 손을 들고 서있게 한다, 5위 엉덩이를 때로 때린다 등으로 됐다. 그리고 高等學校는 1위가 꿰어앉아 있게 한다, 2위 손을 들고 서있게 한다, 3위 벌청소를 시킨다, 4위 손바닥을 때로 때린다, 5위는 엎드려 뺨쳐 있게 한다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는 모두 때로 손바닥을 때리는 것, 꿰어앉아 있게 하는것,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것에 공통으로 주어지는 벌의 사용방법을 알 수 있다.



V. 要約 및 結論

A. 要約

본 研究의 目的은 教育現場에서 벌에 대한 教師.學生간의 知각정도를 비교함으로써 教育方法 改善을 위한 基礎자료를 얻는데 있다.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具體的인 問題는 첫째, 學生들의 性別. 학교급별에 따른 벌에 대한 知각차이는 있는가 둘째, 教師들의 性別. 학교급별에 따른 벌에 대한 知각차이는 있는가 이다.

본 研究道具는 社會조사 方法에 의해 수행되었다. 연구도구는 8개 類目으로 구성된 教師用 尺度와 學生用 尺度를 이용했고 모든 자료는 社會과학 調査방법에 의해 처리되었다. 표집대상인 學生은 초.중등 學生 313명, 教師는 초.중등교사 314명이다. 조사 분석된 結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罰의 經驗

벌을 받아본 經驗은 男.女學生 모두가 97%이며 벌을 주어진 經驗은 男.女 教師 88%로서 學生이나 教師 대부분이 벌을 經驗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2. 罰의 필요성 知覺

男.女 學生의 대부분이 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특히 男學生 (74%)이 女學生(66%)보다 그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다.

男.女 教師도 역시 벌의 필요성을 크게 知각하고 있고 그 필요성은 男教師 (85%)보다 女教師 (90%)가 더 필요성을 知각하는 傾向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은 上級學校(국교 89 ; 중교67% ; 고교 60%)에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傾向임을 알 수 있다.

3. 罰의 불필요성 知覺

벌이 불필요한 이유는 學生集團에서는 男學生이 신체적 고통을 주므로(30%), 女學生은 벌없이 지도가 가능하므로(31%), 教師集團에서는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므로(43%)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4. 罰이 필요성을 知覺한 정도

學生들은 罰의 필요성 知覺 정도를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의 중간 척도상으로 나타냈다. 國民學校 학생은 평균치 4.18을 나타내어 강하게 필요성을 나타냈고 고등학생은 필요성을 제일 낮게 느꼈다, (평균치 3.76) 교사들은 “필요하다”에 강한 느낌을 보였다, (평균치 3.94) 學生, 教師 공히 Likert 5점척으로 된 것이다.

5. 罰이 필요한 理由

男.女 學生 공히 벌이 필요한 이유의 1순위가 “나쁜 버릇을 고쳐 준다” 2순위가 “질서유지가 잘 된다”로 보여주고 있다. 교사집단은 벌이 필요한 이유 1순위가 “질서유지가 잘 되므로”(남:76%, 여:73%)였다.

6. 罰이 사용된 장소

罰 받은 장소를 분석한 것을 보면 “과실행위를 일으킨 현장에서”가 1위로 되게 반응을 보였다.(남:78%, 여:88%) 교사집단도 “과실행위를 일으킨 현장”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남교사:50%, 여교사:66%)

7. 罰에 의한 過失行動 변화정도 效果

罰이 효과적인가 라는 질문에 서열 척도화된 Likert형 5점척으로 된 것에 반응한 결과 학생은 “효과적이었다”와 “잘 모르겠다”의 중간지점에 반응을 나타냈다(평균치 남:3.31, 여:3.67) 교사집단은 평균치 2.93으로 “효과적이지 못했다”와 “잘모르겠다” 사이에 반응하고 있다.

8. 罰의 유형

罰의 유형 13개를 제시한 것중 5개를 지적하라는 質問에 學生들은 남,여 물론 초.중등학교에서 모두 1 순위가 “매로 손바닥을 때린다”였고 教師集團은 1순위가 남교사는 “꿇어앉아 있게 한다”에 반해서 女教師는 “손바닥을 매로 때린다”로 나타났다.

B. 結論

이상의 요약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學生集團이나 教師集團이 모두 벌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음을 볼때, 때와 장소 및 狀況에 따라 벌을 통해서 生活指導와 學習指導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받을 수가 있다.
2. 대부분의 學生集團이나 教師集團 모두가 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의 필요성은 학생집단 보다도 教師集團에서 더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벌이 필요한 이유는 學生集團에서는 첫째,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 때문에, 둘째, 질서유지가 잘 되기 때문인데 반해, 교사 집단에서는 첫째, 질서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둘째, 학습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이다. 한편, 벌이 불필요한 이유로서는 학생집단에서는 신체적 고통, 教師集團에서는 인간의 인격을 무시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벌은 자칫 잘못하면 신체적 고통과 인격을 무시함으로써 개인적 成長 發達과 學習意慾 향상에 장애적 영향을 줄 잠재적 가능성이 내재될 우려가 있어 행동 변화나 질서 유지 및 학습향상이라는 벌 본래의 기능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받을 수 있다.

3. 學生集團의 80%와 教師集團의 평균과반수가 過失行爲를 일으킨 현장에서 벌을 주거나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나쁜 行爲는 즉석 제재를 하여 善.惡의 개념을 분명히 심어주므로써 그 再發의 기회를 막기 위한 教師의 豫防的 치료로 간주될 수 있다.

4. 학생들은 벌에 대해서 效果的이란 반응을 보인데 비해, 교사들은 반대로 效果的이 아닌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잘못된 行爲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 준다든가,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죄에 상응한 罰을 준다든가, 사적인 석상에서 벌을 줄 때는 효과가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추리해 볼 수가 있다.

5. 남.여.초.중등 학생이 받는 벌의 유형은 “손바닥을 때로 때린다”는 것이데 반해서, 남.여 교사가 주는 벌의 유형을 보면 남교사는 “뚫어 앉아 있게 한다”는 것이며, 女教師는 “손바닥을 때로 때린다”라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개관해 볼 때, 洋의 東西를 막론하고 인간의 집단 생활에는 적절한 통제 방법 혹은 制裁的 手段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고 하겠다. 미숙한 세대의 다수 청년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학교환경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사회에서 學生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은 한층더 높은 수준으로 승화된 것이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부적절한 행동을 제재하는 일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수단들은 비윤리적이거나 인간의 자존감을 해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인간을 교육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꾸준히 탐구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参 考 文 献 >

1. 姜元根, “학교의 상벌실태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 대학원, 1979.
2. 權五鎰, “교육상의 상벌론” 교육연구, 제9권 5호, 1979.
3. 金南星, 「교육심리학」, 서울 : 교육과학사, 1988.
4. 金敏洙 . 洪雄善, 종합국어사전, 서울:어문각, 1976.
5. 金基錫譯, 「행동분석」, 서울 : 고려대학출판부, 1979.
6. 金丁煥, 「전인교육론」, 서울 : 세영사, 1982.
7. ———, “교육철학적 측면에서본 체벌론” 새교육통권 346호 제주교육 연합회, 1983.
8. 金學秀, 李熙道, 「현대교수학습론」, 서울 : 현대교육출판사, 1973.
9. 南德佑 「최신교육학대사전」, 서울 : 교육과학사, 1983.
10. 羅信奎, “학교교육에 있어서 체벌의 성립근거에 관한고찰”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1989.
11. 朴連鎬, 「교사와 인간관계」, 서울 : 범문사, 1984,
12. 朴昌來, “영국 회초리 교육 사라진다” 동아일보 86, 12, 6.
13. 朴泰隆, “체벌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의 태도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2.
14. 房 麟, “학교교육에서 체벌의 사용 가능성과 그한계에 관한고찰”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989.
15. 宋元實, 「벌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986.
16. 李蕃來, “학교교육현장에서의 아동체벌의 실태와 교사, 학부모, 아동 집단간의 지각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교육대학원, 1982.
17. 李奉三, “상벌제의 교육적효과.” 교육연구, 통권연구, 통권92호서울: 한국교육생산성 연구소, 1976.
18. 李星珍, 「학교에서의 행동수정」, 교육신서2 서울 : 배영사, 1990.
19. ———, 「행동수정의 원리」서울 : 교육과학신서, 1979.
20. 李英俊, “아동체벌의 실태분석과 체벌의 아동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1980.

21. 李 玄 子, "체벌이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83.
22. 李 喜 榮, "체벌에 대한 교사, 학부모, 아동의 태도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2.
23. 李 熙 昇, 「국어대사전」, 서울 : 민중서관, 1975.
24. 吳 淸 煥, "국민학교에서의 훈육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76.
25. 鄭 琴 仙, "체벌의 교육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1976.
26. 鄭 鎭 坤, "윤리적 교육적 개념으로서의 벌",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8.
27. 鄭 元 植 . 李 相 魯 外, 「현대교육 심리학」 서울 : 교육출판사, 1980.
28. ———, 「정보의 교육」, 서울 : 배영사 1973.
29. 鄭 忠 教, "교사의 학생체벌은 불가피하다" 「교육신보」, 86.12.
30. 車 錫 基, 「서양교육사」, 서울 : 집문당 1981.
31. 沖 原 豊, 「학교체벌」, 朴 俊 熙 譯, 서울 : 정민사, 1982.
32. Peters, R.S. 李 煥 雨 譯, 「윤리학과 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1984.
33. 바르후. 브르디, 황경식역, 「응용윤리학」, 종로서적, 1988.
34. 테일러, P. 김영진역. 「윤리학의 기본원리」, 서울 : 서광사 1985.
35. Thomas Mcdaniel, Exploring Alternatives to Punishment: The Key to Effective Dscipline, ph; Delta KAPPAN, march, 1980.
36. Barrell, G.R. Teachers and the Law, London; methen and CO. Ltd. 1975
37. Bowles, samuel & Gintis, Herbert. school in Capitalist America Newyork : Basic Book Inc, 1976.
38. Gnagey, W. j., The Psychology of discipline in the classroom, London: Macmillan Co, 1968.
39. Larry. Hjelle and Danniell J. Ziegler, "personality Theories," New York ; Mcgrow Hill International Book Company 1980.
40. Marshall, S.D. "Punishment and Education", Educational Theory 25(2), 1975.

<abstract>

A STUDY OF TEACHERS' & STUDENTS' PERCEPTION ON PUNISHMENT

Jin, Hee-Cha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Myung-Gyu

The term 'punishment' is an act of retribution or a penalty imposed for wrong doing. The terminology has very broad concepts: A steady gaze is a kind of mild punishment whereas physical punishment is considered to be a severe one. Punishment is an unpleasant experience consequent on a certain course of behavior and mediated by an external agent in the hope of providing retribution or discouraging the repetition of the improper behavior.

Punishment was little studied by earlier learning theorists. Still there are no agreed-upon facts about its effectiveness. There can, however, be no question but that immediate, consistent and severe punishment of a particular action will effectively stop that action being performed. But there do remain legitimate doubt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July, 1991.

Punishment may cause people refrain from performing the punished action only when they believe that they will be punished again. Punishment may have undesirable side effects. It is an indispensable measure of controlling human behavior so long as social activity is going on in spite of its unpleasantness and side eff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students and teachers towards the punishment. The up-to-date data provided by such kinds of survey will be utilized timely in improving and planning student guidance program.

The main concentration of this study are five areas: the experiences of punishment, the inevitability of punishment, the reasons for its inevitability, intensity of its inevitability and the kinds of punishment practised in school environment.

Social Research Method was applied to conduct the study. Separated forms of Questionnaire were developed with the same criteria of five areas (Questionnaire for Teachers and Questionnaire for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627 teachers and student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 Cheju Province.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1) **The Experiences of Punishment:** 97% of students reported that they have experienced several sorts of punishment while 88% of teachers responded that they have experiences to exercise punishment to students. It is hard to deny that such tendency is overwhelming in present school situations.

2) **The Inevitability of Punishment:** The majority of students as well as teachers have acknowledged that they need some kinds of punishment in schools. 74% of male students agreed on the inevitability of punishment whereas the 66% of female students agreed on this item. Female teachers(90%) seem to be more actively responded to this item that male teachers(85%) though the difference is very slight.

3) **The Reason for its Inevitability:** Students answered that the reasons for its inevitability are (1) the modification of mis-behaviors (2) the establishment of order in school life. However, teachers responded to such reasons as (1) the establishment of order in school life and (2) the progress of learning.

4) **The Intensity of its Inevitability:** The intensity is measured by under five categories with Likert-type-scale: (5) quite needed, (4) needed, (3) neutral, (2) not needed, and (1) absolutely not needed. Students' responses are centered on between (5) and (4) whereas teachers' responses are centered around (4). Both the groups seem to feel that they positively perceive the punishment exercises in spite of many oppositions from inside and outside of schools.

5) **The Kinds of Punishment in the School Environment:**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have experiences about some kinds of whipping (slight whipping and heavy whipping) and slapping while teachers indicated kneeling first and light whipping second.



附 錄

<부 록 1>	교사용 질문지	59
<부 록 2>	학생용 질문지	67
<부 록 3>	벌이 필요없다고 생각할때 학생지도 방법분석	67
<부 표 1>	학생성별에 따른 벌없는 학생지도 방법분석	67
<부 표 2>	학생의 학교급별에 따른 벌없는 학생지도 방법분석	68
<부 표 3>	교사의 성별에 따른 벌없는 학생지도 방법분석	68
<부 표 4>	교사의 학교급별에 따른 벌없는 학생지도 방법분석	69
<부 표 5>	학생성별에 따른 벌없는 지도방법의 효과분석	69
<부 표 6>	학생의 학교급별에 따른 벌없는 지도방법의 효과분석	70
<부 표 7>	교사의 성별에 따른 벌없는 지도방법의 효과분석	70
<부 표 8>	교사의 학교급별에 따른 벌없는 지도방법의 효과분석	70



< 부 록 1 >

教師用 質問紙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교육에 전념하시는 선생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질문지는 지난 일년 동안에 벌(罰)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쁘신 중이나마 교육발전을 위하여 빠짐없이 답하여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은 본 연구 외의 목적으로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밝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1년 3월 29일

제주대학교 교육행정 연구실

* 해당란에 “ V ” 표 해 주십시오.

1. 학교급별 : 국민학교____, 중학교____, 고등학교____.

2. 성별분류 : 남자교사____, 여자교사____.

3. 선생님은 현재의 학교에서 학생에게 벌을 주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____, 2) 없다____.

4. 선생님께서는 학생 지도상 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필요하다____,

2) 필요하지 않다____.

* 다음 문항들은 벌에 반대하는 선생님만 응답해 주십시오(문항 5-문항 9까지).

5. 벌이 "필요없다" 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므로_____,
- 2) 벌주는 사람의 화풀이에 불과하므로_____,
- 3) 인간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므로_____,
- 4) 벌 없이도 지도가 가능하므로_____,

6. 벌을 반대하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7. 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때 선생님은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 하십니까?

- 1) 말로 타이른다_____,
- 2) 표정으로 의사전달을 하여 행동을 바로 잡는다._____,
- 3) 반성문을 쓰도록 한다._____,
- 4) 방임한다._____,

8. 벌 없이 지도 할 수 있는 특별한 지도방법을 사용하신다면 어떤것이 있습니까?



9. 선생님이 벌없이 학생을 지도할때 어느정도 효과적이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 5) 매우 효과적이었다._____,
- 4) 약간 효과적이었다._____,
- 3) 잘모르겠다._____,
- 2)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다._____,
- 1) 전혀 효과적이지 못했다._____,

* 다음 문항은 벌에 찬성하는 선생님께서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선생님은 벌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5) 매우 필요하다. _____,
- 4) 필요하다. _____,
- 3) 잘 모르겠다. _____,
- 2) 필요 없다. _____,
- 1) 전혀 필요없다. _____,

11. 벌이 필요하다면 다음 어느 이유에서입니까?

- 1) 학습을 향상시켜 주므로 _____,
- 2) 질서유지가 잘되므로 _____,
- 3)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므로 _____,
- 4) 나쁜 성격을 고쳐주므로 _____,

12. 그밖에 벌이 필요한 이유가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13. 벌을 주었을때 학생지도에 어느정도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5) 매우 효과적이었다. _____,
- 4) 약간 효과적이었다. _____,
- 3) 잘모르겠다. _____,
- 2)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다. _____,
- 1) 전혀 효과적이지 못했다. _____,

14. 선생님은 과실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어떤 곳에서 벌을 줍니까?

- 1) 과실행위를 일으킨 현장에서 _____,
- 2) 교무실로 데리고 와서 _____,
- 3) 아무도 없는 곳에서 _____,

15.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벌의 방법부터 다섯개만 순위를 써 주십시오.

- | | |
|-------------------|--------------|
| 1) 손바닥을 때로 때린다. | 순위 제 _____ 위 |
| 2) 종아리를 때로 때린다. | 순위 제 _____ 위 |
| 3) 엉덩이를 때로 때린다. | 순위 제 _____ 위 |
| 4) 뺨을 때린다. | 순위 제 _____ 위 |
| 5) 출석부나 책으로 때린다. | 순위 제 _____ 위 |
| 6) 주먹으로 알밤을 때린다. | 순위 제 _____ 위 |
| 7) 손으로 꼬집는다. | 순위 제 _____ 위 |
| 8) 꿰어 앉아 있게 한다. | 순위 제 _____ 위 |
| 9) 엎드려 벌쳐있게한다. | 순위 제 _____ 위 |
| 10) 토끼땀을 시킨다. | 순위 제 _____ 위 |
| 11) 손을 들고 서있게 한다. | 순위 제 _____ 위 |
| 12) 벌청소를 시킨다. | 순위 제 _____ 위 |
| 13) 단체기합을 준다. | 순위 제 _____ 위 |

< 부 록 2 >

學生用 質問紙

학생 제위께

안녕하십니까.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 질문지는 지난 일년 동안에 벌(罰)에 대한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알아 보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각 문항을 빠짐없이 답하여 주시면 매우 감사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이 응답하여 주신 의견은 본 연구외의 목적으로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밝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1년 3월 29일

제주대학교 교육행정 연구실

* 해당란에 “V”표 해 주십시오.

1. 다니고 있는 학교 : 국민학교____, 중학교____, 고등학교____.
2. 성별분류 : 남자학생____, 여자학생____.
3. 학년 : 1학년____, 2학년____, 3학년____.
4. 학생은 학교생활중 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____,
 - 2) 없다.____.
5. 학생은 학교생활중 받게되는 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필요하다.____,
 - 2) 필요하지 않다.____.

* 다음 문항들은 벌에 반대하는 학생만 응답해 주십시오(문항 5 - 문항 9까지).

6. 벌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므로____,
- 2) 벌주는 사람의 화풀이에 불과하므로____,
- 3) 인간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므로____,
- 4) 벌 없이도 지도가 가능하므로____,

7. 벌을 반대하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8. 벌이 필요없다고 생각할 때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 1) 말로 타이른다.____,
- 2) 표정으로 의사전달을 하여 행동을 바로 잡는다.____,
- 3) 반성문을 쓰도록 한다.____,
- 4) 방임한다.____,

9. 벌 없이 지도할 수 있는 특별한 지도방법이 있다면 아래에 써보십시오.

10). 벌 없이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어느정도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5) 매우 효과적이었다.____,
- 4) 약간 효과적이었다.____,
- 3) 잘 모르겠다.____,
- 2)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다.____,
- 1) 전혀 효과적이지 못했다.____,

* 다음 문항은 벌에 찬성하는 학생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문항 11 - 문항16까지).

11. 학생은 벌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5) 매우 필요하다.____,
- 4) 필요하다.____,
- 3) 잘 모르겠다.____,
- 2) 필요없다.____,
- 1) 전혀 모르겠다.____,

12. 벌이 필요하다면 다음 어느 정도 이유에서입니까?

- 1) 학습을 향상시켜주므로.____,
- 2) 질서유지가 잘 되므로____,
- 3)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게 되므로____,
- 4) 나쁜 버릇을 고쳐주므로____,

13. 그밖에 벌이 필요한 이유가 있으면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14. 학생의 과실행위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반응 하셨던가요?

- 1) 즉시 벌을 주었다.____,
- 2) 기회를 보아서 주었다.____,
- 3) 줄때도 있고 주지 않을때도 있었다.____,

15. 선생님은 과실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어떤곳에서 벌을 주었던가요?

- 1) 과실행위를 이르킨 현장에서____,
- 2) 교무실로 데리고 와서____,
- 3) 아무도 없는 곳에서____,

16. 학생이 가장 많이 벌을 받았던 방법부터 다섯개만 순위를 써 주십시오.

- | | |
|-------------------|--------------|
| 1) 손바닥을 때로 때린다. | 순위 제 _____ 위 |
| 2) 종아리를 때로 때린다. | 순위 제 _____ 위 |
| 3) 엉덩이를 때로 때린다. | 순위 제 _____ 위 |
| 4) 뺨을 때린다. | 순위 제 _____ 위 |
| 5) 출석부나 책으로 때린다. | 순위 제 _____ 위 |
| 6) 주먹으로 알밤을 때린다. | 순위 제 _____ 위 |
| 7) 손으로 꼬집는다. | 순위 제 _____ 위 |
| 8) 꿰어앉아 있게 한다. | 순위 제 _____ 위 |
| 9) 엎드려 뺨쳐있게 한다. | 순위 제 _____ 위 |
| 10) 토끼뿔을 시킨다. | 순위 제 _____ 위 |
| 11) 손을 들고 서있게 한다. | 순위 제 _____ 위 |
| 12) 벌청소를 시킨다. | 순위 제 _____ 위 |
| 13) 단체기합을 준다. | 순위 제 _____ 위 |

17. 학생은 벌이 과실행동수정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5) 매우 효과적이었다. _____,
- 4) 효과적이었다. _____,
- 3) 잘모르겠다. _____,
- 2)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다. _____,
- 1) 전혀 효과적이지 못했다. _____,

< 부 록 3 >

罰이 필요없다고 생각할 때의 學生 指導 方法分析

罰이 필요없다고 생각할 때의 學生指導 방법을 주어진 4개 項目 중 선택하여 표시하라는 문제 분석을 아래표에 나타냈다.

<부표-1> 학생 성별에 따른 벌없는 학생지도 方法分析

()안은 %임

항 목 \ 성 별	남학생	여학생
1. 말로 타이른다.	18 (36.73)	34 (64.15)
2. 표정으로 의사전달의 행동을 바로 잡는다.	8 (16.33)	9 (16.98)
3. 반성문을 쓰게한다.	20 (40.82)	10 (18.87)
4. 방입한다.	3 (6.12)	0
계	49(100)	52(100)

df = 3 df = 3
X²=16.061 X²

〈부표-2〉 學生의 학교급별에 따른 罰없는 學生指導 方法分析

()안 %임

항 목 \ 학교급별	국민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1. 말로 타이른다.	5 (27.78)	25 (44.64)	10 (76.92)
2. 표정으로 의사전달하여 행동을 바로 잡는다.	7 (38.89)	4 (7.14)	3 (23.08)
3. 반성문을 쓰도록 한다.	5 (27.78)	25 (44.64)	0
4. 방입한다.	1 (5.55)	2 (3.57)	0
계	18(100)	56(100)	13(100)

〈부표-3〉 교사의 성별에 따른 罰없는 學生指導方法 分析

()안은 %임

항 목 \ 성 별	남교사	여교사
1. 말로 타이른다.	25 (71.43)	10 (62.5)
2. 표정으로 의사전달의 행동을 바로 잡는다.	8 (22.86)	4 (25)
3. 반성문을 쓰게한다.	2 (5.71)	1 (6.25)
4. 방입한다.	0	1 (6.25)
계	35(100)	16(100)

〈부표-4〉 교사의 학교급별에 따른 罰없는 學生指導方法 分析

()안은 %임

항 목 \ 학교급별	국민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1. 말로 타이른다.	4 (50)	1 (14.19)	23 (69.7)
2. 표정으로 의사전달하여 행동을 잡는다.	0	2 (28.57)	3 (24.24)
3. 반성문을 쓰도록한다.	2 (25)	4 (57.14)	1 (30.3)
4. 방입한다.	0	0	1 (30.3)
계		7(100)	28(100)

〈표 3-5〉부터 〈표 3-8〉은 罰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集團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指導方法을 제시한 것이다. 分析結果 어느 집단이나 차이점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찾아 볼수 없는 것들로 판단되어 그 결과만 附錄에 제시한 것이다.

〈부표-5〉 학생성별에 따른 벌없는 指導方法의 效果分析

()안은 %임

	N	\bar{X}	S	t
남 학생	102	3.1569	1.022	-1.41
여 학생	90	3.3667	1.1043	

<부표-6> 學生의 학교급별에 따른 罰없는 指導方法의 效果分析

	N	\bar{X}	S
국민학교	47	2.8085	0.9699
중학교	102	3.2843	0.9788
고등학교	17	3.1176	1.0537

SV	SS	df	MS	F
SSB	7.2881	2	3.6440	3.764
SSW	157.7962	163	0.9681	
SST	165.0843	165		

<부표-7> 教師의 性別에 따른 罰없는 指導方法의 效果分析

	N	\bar{X}	S	t
남교사	179	1.9326	0.607	-0.18
여교사	93	1.9462	0.5594	

<부표-8> 교사의 학교급별에 따른 罰없는 指導方法 分析

	N	\bar{X}	S
국민학교	7	2.0000	1.0000
중학교	10	2.1000	0.9944
고등학교	35	1.9143	0.8156

SV	SS	df	MS	F
SSB	0.2802	2	0.1401	0.204
SSW	33.6429	49	0.6866	
SST	33.9231	51		